

모음부터 배워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조성녀 마리아 (새싹반 담임)

한글학교에서 유치반을 가르친 지도 어느덧 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때 ㄱ, ㄴ도 모르던 아이가 나중에 받침 있는 글자를 읽는 모습을 볼때가 교사를 하면서 가장 기쁜 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아이들이 가장 쉽게 한글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다면 저는 음절교육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절교육법은 유아들이 가장 쉽게 음절을 익히고 글자를 뗄 수 있는 학습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일부 한글교육기관에서는 요즘 자모음 체계를 바탕으로한 새로운 음운 교육 커리큘럼을 가지고 기존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원들과의 차별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음운교육커리큘럼은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 하는 음절교육법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음절교육법은 이제 막 글자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은 유아들이 음절 음으로 재미있게 한글을 깨우칠 수 있는 친근한 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반복학습이고, 기본음절을 제대로 익히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이며 게다가 읽기와 쓰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학습법이기도 합니다.



음절교육법의 특징은 유아들에게 모음을 우선 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라도 소리가 나고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모음을 - 엄마들이 유아들의 미각을 개발시키기 위해 소화가 잘되는 이유식을 맛보게 하듯이 - 맛보이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자음은 혼자서 발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만일 'ㄱ'을 배우다고 하면 'ㄱ'은 그냥 발음할 수도 없고 그것으로 단어를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ㄱ'을 배우면서 '가방, 그네, 교회'등을 가르치지요. 이제 겨우 'ㄱ'을 배우는 아이에게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음절을 가르치는 것은 - 미각을 경험이 없는 유아에게 쌀밥이나 미역국 맛보이는 것처럼 - 무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절교육법에서는 단독으로 소리가 나고 단어를 만들 수 있는 모음을 우선 맛보이는 것이지요.

음절교육법은 또한 단순한 단어식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식이란 “가족: 아버지, 어머니, 나, 동생”처럼 한글의 원리가 아닌 단어 그 자체를 암기시키는 한글교육법을 말합니다. 언어에 경험이 없는 유아들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는 한글교육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모음을 우선 경험시키는데서 오는 장점들을 몇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음절은 모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음 '아, 야…….'를 배우면 자음과는 달리 바로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음부터 학습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다른 좋은점은 모음을 차례로 모두 익힌 후 자음을 배우면 한글공부에 더 흥미를 보여서 학습력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아, 야, 어, 여 …….'를 먼저 익힌 후 'ㄱ'을 가르치면 '가, 가…….' 10 개의

음절을 쉽게 알게 됩니다. '니'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몇 개의 자음을 익히고 나면 '즈, 츠, 흥' 등을 더욱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일부 학습지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함께 무리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유아들은 'ㄱ, ㄴ, ㄷ, ㄹ……' 자음과 '아, 야, 어, 여 ……' 모음과 함께 익혀야 하기 때문에 쉽게 싫증을 내며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단어(통문자)로 한글을 익히면 더 빨리 배우지 않을까요?”

단어로 한글을 가르치는 방법을 통문자 한글교육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먼저 다른 교육법에 비해 뛰어난 효과를 뒷받침해주는 학자들의 한글 관련연구물이나 효율성을 입증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이나 학생들의 증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문자 한글교육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실패율이 아주 높습니다. 교육과정에서도 단어가 아니라 음절을 사용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즉 한 음절씩 합쳐서 단어를 만들고 읽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고'+ '기'로 암기 시킵니다.

저역시 음절교육법을 가장 효과적인 한글 교육법으로 권고 드립니다.

어려서 한글을 접하게 해주는 것이 더 한글학습에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한글음절에 흥미를 보일 때 아이와 함께 음절노래를 부르고 함께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시면 아이는 더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가고 재미있는 한글공부를 할 수 있지만 엄마가 무관심으로 아이를 대하면 아이는 한글에 관심과 흥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한글 떼기를 강요하시면 한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학습 전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